

# 업 무 현 황

2010. 10. 4

# 목 차

## I. 일반 현황 ..... 1

1. 기구와 정원 ..... 3
2. '10년 예산 집행 현황 ..... 5
3. 정기국회 법률(안) 개요 ..... 6

## II. 최근 실물경제 동향 ..... 9

1. 최근 실물경제 동향 ..... 11
2.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..... 12

## III.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..... 13

### 1. 함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..... 15

- ①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정착·확산 ..... 17
- ② 지식경제 R&D 혁신체제 본격 가동 ..... 18
- ③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내실화 ..... 19
- ④ 생활밀착형 친서민 정책 강화 ..... 20

### 2. 성장활력의 재충전 ..... 23

- ① 산업융합 촉진기반 구축 ..... 25
- ②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..... 26
- ③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 ..... 27
- ④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..... 29

### 3. 무역·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 ..... 31

- ① 최근 수출입 동향·전망 및 향후 대책 ..... 33
- ② 외국인 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..... 35
- ③ 신흥시장 맞춤형 경험전략 추진 ..... 36
- ④ 경제자유구역 내실화·활성화 ..... 37

### 4.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·자원정책 ..... 39

-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..... 41
- ②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..... 42
-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성장동력화 ..... 43
- ④ 전력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화 ..... 44
- ⑤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..... 45
- ⑥ 안전한 에너지 관리 ..... 46

## **I. 일 반 현 황**

# 1 기구와 정원

◇ 지식경제부는 상업·무역·공업, 외국인 투자, 정보통신산업, 산업기술 연구 개발정책, 에너지·지하자원, 우편·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 (정부조직법 제32조)

□ 조직 : 2차관, 5실, 16관, 1단, 59과, 6팀, 1본부, 2위원회, 6원, 5소, 3기획단

- 산업경제분야 : 산업경제실 3관 13과 1팀
  - 성장동력분야 : 성장동력실 3관 15과
  - 무역·투자분야 : 무역투자실 3관 10과
  - 에너지·자원분야 :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4과 2팀
  - 기획·직속분야 : 기획조정실, 감사관 등 4관 7과 3팀
  - 소속기관 : 우정사업본부, 무역위원회, 전기위원회, 기술표준원 등
- 원전수출진흥과(본부), 동해·울진 자유무역지역관리원(소속기관) 신설('10.4)

□ 정원 : 32,626명 (본부 760명 + 소속기관 31,866명<sup>1)</sup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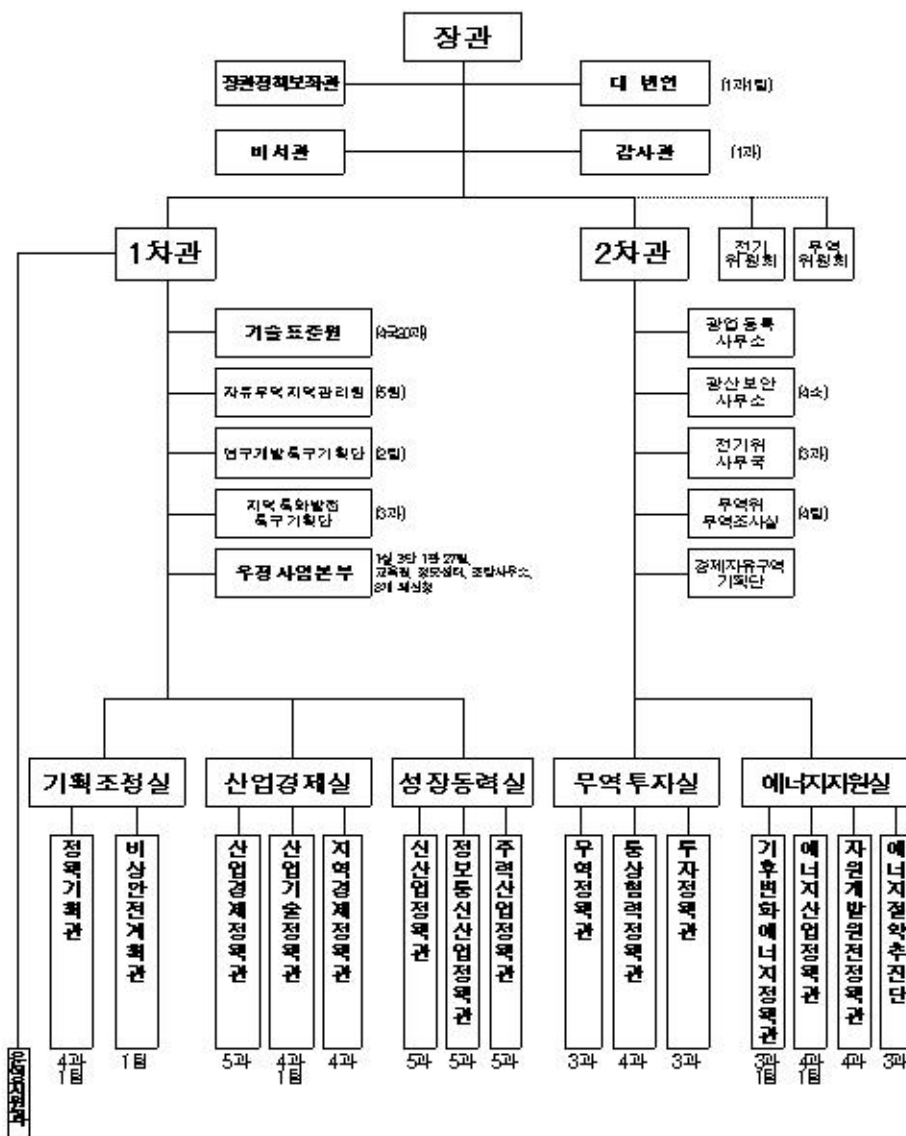
- 소속기관 31,866명 : (우정사업본부 31,375명, 무역위원회 49명, 전기위원회 32명, 기술표준원 224명, 광업등록사무소 33명, 자유무역지역관리원 69명, 광산보안사무소 33명, 연구개발특구기획단 12명,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4명,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명)

(<sup>1</sup>10.6 현재)

| 구 분   | 정무직 | 고위공무원단 |    | 3~9급 |     |    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연구직 |        | 기능 | 계약 | 계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|
|       |     | 가      | 나  | 3급   | 4급  | 4-5급 | 5급  | 6급    | 7급    | 8급    | 9급  | 연구관 | 연구사 | 기능     |    |    |        |
| 지식경제부 | 3   | 5      | 17 | 17   | 46  | 75   | 261 | 196   | 43    | 11    | 7   |     | 1   | 75     | 3  |    | 760    |
| 소속기관  |     | 3      | 22 | 8    | 185 | 37   | 613 | 3,194 | 2,347 | 3,268 | 981 | 39  | 25  | 21,144 |    |    | 31,866 |
| 총 계   | 3   | 8      | 39 | 25   | 231 | 112  | 874 | 3,390 | 2,390 | 3,279 | 988 | 39  | 26  | 21,219 | 3  |    | 32,626 |

## 참고

## 지식경제부 조직도



## 2 '10년 예산 집행 현황

□ '10년 세입은 10조 7,999억원, 세출은 15조 449억원

○ 집행실적(8.31일 현재) : 세입 87.7%, 세출 70.3%

(단위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2009년도<br>결 산 | 2010년도  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예산      | 집행(8.31) | 집행율(%) |
| <b>세 입</b>       | 112,218       | 107,999 | 94,738   | 87.7   |
| ○ 일반회계           | 628           | 2,453   | 333      | 13.6   |
| ○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   | 137           | 89      | 86       | 96.6   |
| ○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| 2             | 0       | 0        | 0      |
| ○ 해안지 및 자연산업특별회계 | 40,085        | 45,074  | 30,830   | 68.4   |
| ○ 우천사업특별회계       | 32,601        | 34,427  | 24,989   | 72.6   |
| ○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    | 33,080        | 19,804  | 32,726   | 165.2  |
| ○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    | 5,703         | 6,152   | 5,774    | 94.0   |
| <b>세 출</b>       | 148,130       | 150,449 | 105,825  | 70.3   |
| ○ 일반회계           | 42,358        | 34,505  | 27,866   | 80.7   |
| ○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 | 10,855        | 14,366  | 11,541   | 80.3   |
| ○ 해안지 및 자연산업특별회계 | 33,509        | 40,954  | 25,331   | 61.8   |
| ○ 우천사업특별회계       | 31,699        | 34,427  | 21,205   | 61.5   |
| ○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    | 24,266        | 19,804  | 15,864   | 80.1   |
| ○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    | 5,440         | 6,152   | 3,962    | 64.4   |
| ○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| 1             | 241     | 55       | 22.8   |

□ '10년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6,768억원 등 총 31,328억원

○ 집행실적(8.31일 현재) : 60.9%

(단위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| 2009년도<br>결 산 | 2010년도 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계획     | 집행(8.31) | 집행율(%) |
| ○ 전력산업기반기금    | 17,217        | 16,768 | 10,961   | 65.4   |
| ○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| 134           | 114    | 35       | 30.7   |
| ○ 정보통신진흥기금    | 12,282        | 10,406 | 6,585    | 63.2   |
| ○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| 1,797         | 4,040  | 1,523    | 37.7   |

※ 수출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

## 3 정기국회 법률(안) 개요

### 가. 10년 입법계획 및 추진현황

□ '10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추진 법률안은 총 27건

○ 현재 7건 법률안\*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, 나머지 20건 법률안은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(참고 : 2010년 정부 입법계획 법률안)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(통과), 산업발전법,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전기용품 안전관리법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, 전기사업법, 디자인보호법

### 나. 정기국회 주요 법률(안)

□ 도시가스사업법

○ 가스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허가 조항 마련

□ 산업융합촉진법(제정)

○ 산업전반 융합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※ 융합신제품 임시인증 도입,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등

□ 산업발전법

○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지원

※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「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」 보고(10.3.18) 후속조치

□ 산업기술혁신촉진법

○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유사규정 통합 및 R&D 전략기획단 설립근거 마련

□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법(제정)

○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체계 확립 및 지원근거 마련

## 2010년 정부입법계획 법률(안) 목록

※ ★ : 제철, ◎ : 전부개절

## **II. 최근 실물경제 동향**

## 1 최근 실물경제 동향

- (세계경제)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미국·중국·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



- (한국경제) 금년 2/4분기 7.2%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생산·수출·고용 증가세 등 실물경제 개선 흐름이 지속

• 실질 GDP(전년동기비, %) : ('09.1/4) 4.3 → ('10.2/4) 2.2 → ('10.3/4) 1.0 → ('10.4/4) 6.0 → ('10.1/4) 8.1 → ('10.2/4) 7.2

- (생산) 수출과 투자 호조세로 광공업생산은 9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,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(84.8%)

• 광공업생산(전월대비, %) : ('09.7) 2.2 → ('10.3) 1.9 → ('10.4) 0.2 → ('10.5) 2.7 → ('10.6) 1.6 → ('10.7) 1.1

• 평균가동률(%) : ('09.7) 78.7 → ('10.3) 82.4 → ('10.4) 82.2 → ('10.5) 82.8 → ('10.6) 83.9 → ('10.7) 84.8

- (수출) 자동차·반도체 등 주력품목이 9월에도 수출을 주도하며 8개월 연속 흑자 기록('10.上 세계수출순위 사상 첫 7위 기록)

• 수출 증감(전년동월비, %) : ('09.9) 49.4 → ('10.4) 29.6 → ('10.5) 40.1 → ('10.6) 30.2 → ('10.7) 28.3 → ('10.8) 29.6 → ('10.9) 17.2

- (투자) '09.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투자리수 증가세 지속

• 설비투자지수(전년동월비, %) : ('09.7) 18.3 → ('10.3) 34.7 → ('10.4) 25.6 → ('10.5) 24.3 → ('10.6) 23.8 → ('10.7) 33.5

- (고용)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로 견조한 고용회복 흐름 유지

• 민간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 : ('09.7) 47.5 → ('10.3) 19.2 → ('10.4) 51.7 → ('10.5) 45.5 → ('10.6) 58.8 → ('10.7) 55.9

• 실업률(%) : ('09.7) 3.7 → ('10.3) 4.1 → ('10.4) 3.8 → ('10.5) 3.2 → ('10.6) 3.5 → ('10.7) 3.7 → ('10.8) 3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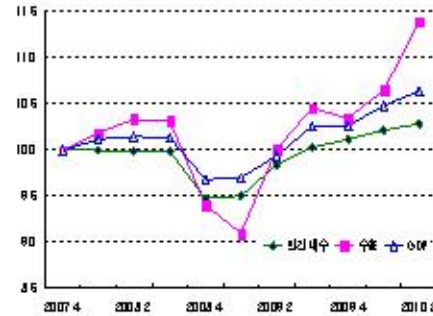
## 2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

- 국내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제위기 당시 급속한 경기위축을 감안할 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단계

- 특히,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주도되는 가운데 내수시장 및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회복이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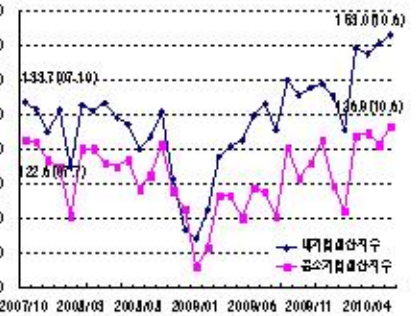
• 위기이전 정점(=100) 대비 '10.2/4분기 증감률: (내수) 102.9, (수출) 110.3

< 금융위기 전후 민간 내수와 수출 >



자료 : 한국은행 국민계정, 2007년4분기=100

< 대기업·중소기업 생산지수 >



자료 : 통계청

- 향후, 미국·중국 등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
- 특히, 투자·고용 등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한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다시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

• 민간부문 GDP 성장률(전년동월비, %) : ('09.2/4) 0.5 → ('10.4/4) 0.4 → ('10.5/4) 0.3 → ('10.6/4) 0.3 → ('10.7/4) 0.2

- ①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
- 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통한 경제회복 운기 확산
- ③ 고용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주력

### Ⅲ.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

---

## 1. 함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축

---

- ① 대-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정착 확산
- ② 지식경제 R&D 혁신체제 본격 가동
- ③ 지역산업 육성 정책 내실화
- ④ 생활밀착형 친서민 정책 강화

## 1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정착·확산

### 가. 추진현황

-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,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은 지연된다는 인식
  - 지경부 중심으로 전국 11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(562개 업체 현장간담회 및 방문, '10.7.6~12)
    - 조사결과 및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비대위 보고 ('10.7.29)
-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·발표 ('10.9)
  - 중소기업 간담회 ('10.9.8), 대기업 간담회 ('10.9.13)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
  -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및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
  - 2·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
- 동반성장 전략의 정착·확산
  -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지정 및 대기업 진입자제 유도(중소기업 적합 업종·품목 선정, 진입실태 조사)
  - 업종별·中企 유형별 전략적 동반성장 프로그램 발굴
  -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유도
    - 철강화학 업종 가격예시제 실시 등
-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
  - 중소기업 경영선진화 및 자발적 구조개선 지원 강화
  - R&D·생산성 등 핵심역량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편
- 확산을 위한 추진·점검체계 구축
  - (민간)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→ 동반성장지수 산정·공표, (정부) 동반성장추진점검단

## 2 지식경제 R&D 혁신체제 본격 가동

### 가. 추진현황

- 지식경제 R&D 성과 향상을 위한 R&D 혁신 추진
  - 지식경제 R&D 기획 역량 강화 등을 위한 '전략기획단' 신설 ('10.5)
  - R&D 사업의 기능별 구조전환 등 R&D 사업구조 개편 ('10.6)
    - 18개 프로그램·74개 단위사업 → 12개 프로그램·47개 단위사업으로 조정
  -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간탈락 확대 등 경쟁체제 도입 ('10.4)
- 지식경제 R&D 사업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
  - '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' 구축('10.6) 및 시범사업 추진 (414개 기관)
  - 지식재산의 보호·활용 강화를 위해 '지식재산 전문회사' 설립 ('10.7)
    - 지식재산 매입 → 고도화 → 라이선스·이전으로 수익창출('15년까지 5천억원 조성)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지식경제 R&D 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
  - 미래산업 선도기술의 선정 및 기획 본격 추진 ('10.11)
    - 기술경쟁력·시장성 등을 고려, '조기성과창출형'과 '신시장창출형'으로 구분 추진
  - 산업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'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' 수립 ('10.11, Innovate Korea Congress에서 발표)
  - 국민, 중소기업 등이 체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'국민편의증진 R&D 대책'('10.12) 및 '중소기업 녹색원천기술 확보전략' 수립
- 지식경제 R&D 투명성 강화 및 인프라 고도화 추진
  - 기술료 제도 전면개편 등 2단계 R&D 혁신전략 수립 ('10.12)
  - 산업기술 출연(연)의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정비
    - 과기계 개편(인) 제출('10.7) → 정부(인) 확정('10.9) → 법개정(인) 국회 제출('10.11)
  - 연구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담 관리기관 지정·운영 추진

### 3 지역산업 육성 정책 내실화

#### 가. 추진현황

- **광역경제권 선도사업**을 본격화하고, **권역간 연계협력사업** 신규추진
  - 20개 선도산업 R&D과제 2차년도 협약 체결('10.7월, 2,755억원) 및 연계협력사업 신규과제 선정('10.6월, 540억원)
    - (1차년도 성과) 중간성과물을 활용한 매출·수출 발생 및 2,246명 신규채용
- 지역간 지원규모 편중 완화 및 투자·고용보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**지방이전·고용 보조금제도를 개편**('10.1월)
  - 지역별 상한(15%) 설정, 낙후지역 지원강화(상시고용인원30인→10인) 등
- 광역경제권 체계 도입에 따른 **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구축**(10.4월)
  - 12개 개별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를, 25개 거점단지와 168개 연계단지로 구성된 광역클러스터로 확대

#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**산학융합지구 조성**
  - 산업단지내에 대학, 기업연구소 입주공간 조성하여 산업단지 기능을 단순생산에서 R&D, 인력양성 등으로 고도화
- **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**
  - 정주여건 개선, 문화시설 확충, 업종 고도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재창조
    - 4개 단지(반월·시화, 남동, 구미, 익산), 30개 과제 1.35조원 투입(10.上~13.上) 예정
- **테크노파크(TP)의 지역산업지원 거점기관화**
  - TP를 기업지원기관 **네트워크**의 거점으로 육성하고, 창업, 금융, 인력 등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**비즈니스 센터**로 확대·개편

### 4 생활밀착형 친서민 정책 강화

#### 가. 추진현황

- **(에너지복지)**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제고를 위해 **요금할인, 시설개선, 연료지원** 등 14개 지원시책 운영 중
  - 요금할인을 : (전기) 21.6 ~ 20%, (가스) : 16 ~ 11.6% 할인
  - 단열·창호시공 및 보일러 교체 : ('09) 285억 원, 65천가구 지원 → ('10) 292억 원
  -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라 '09년 7.4만 가구에 대해 150억 원(가구당 15만원) 지원
- **(생활표준화)**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민·관 공동 **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 발족**('10.4), **국민제안 사이트 구축**('10.6) 등 소통 확대
  - '12년까지 50대 생활표준화 추진의 일환으로 '10년도에는 고추장 매운맛, 가전제품 리모콘 표준화 등 14개 과제 추진 중
- **(제품안전)** 어린이, 노약자, 서민층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안전 취약품목에 대해 **선제적으로 시판품 조사 후 사전개선 추진**
  -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1,500여개 제품 안전성 조사('10.8)
- **(친서민 금융상품 보급)** 근로빈곤층 상해위험 대비 위한 '**만원의 행복보험**', '**저신용 서민층 우대금리 상품(연 10%)**' 등 보급 추진
  - 보험료 35만원중 1만원 부담으로 상해 사망보험금(2천만원), 입원의료비(90%) 보장
- **(사랑의 울타리 추진)** 지경부, 소속 공공기관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통해 **소외계층 아동 지원 추진**
  -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, 교육, 놀이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, 전국적으로 약 3,500여개 운영 중
  - 지식경제부,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433개소와 자매결연 중

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☐ **(에너지복지) 에너지쿠폰제**를 도입하여 요금할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, 가격변동시 서민대책과 바로 연계하는 복지시스템 구축
  - **에너지복지정책의 법제화**를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에 대한 **국가의 책임을 구체화** (국회상정 예정)
    - 가구당 17.2만원의 에너지쿠폰을 지급하여 전기, 가스, 등유, 연탄 등 구입
    - 소요재원 1,300억원을 에너지공기업이 기여금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추진
- ☐ **(생활 표준화) 수요자 관점의 표준화 추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표준정보 지원체계 개선·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추진**
  - 응용분야 시스템 관점의 표준정보시스템, 제품 설계자를 위한 표준·기술규제 부합화 점검시스템 개발·보급 및 시험인증제도 상호 간 중복 해소 추진
- ☐ **(생활안전) 「제품사고 조사센터」**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정 계량단위 홍보·단속으로 상거래 계량 공정성 강화
- ☐ **(친서민 금융상품) 서민우대 예금·보험상품 보급확대, 우수 중소기업 상품화 자금지원\* 및 중소기업 유통망 지원 등 추진**
  - '06~'10년간 총 4,404억원 지원 ('10년 8월 현재 지원금 잔액 1,207억원)
  - 우체국 창고, 물류센터 등을 활용, 물류창고가 없는 중소기업, SOHO업체의 물품 보관·발송대행 ('10년 3,840만개)
- ☐ **(사랑의 울타리 캠페인) 공공기관 추가 참여 등을 통해 자매결연 지역 아동센터 확대, 사회공헌 인센티브 제도화, 경기 실적점검 등 추진**
  -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공헌 부분 **배점확대 추진** (기획재정부 협의), 분기별 '사랑의 울타리 추진협의회' 개최 통한 실적점검 및 우수사례 전파 등

---

## 2. 성장활력의 재충전

---

- ① 산업융합 촉진기반 구축
- ②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
- ③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
- ④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

## 1 산업융합 촉진기반 구축

### 가. 추진현황

-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'녹색'과 '융합'이 강조되는 가운데 융합산업은 큰 잠재력을 보유한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寶庫로 대두
  - 융합 신시장 규모조별, 탈로이트, '09) : ('08) 8.6 → ('13) 20.3 → ('18) 68.1
  - 특히 융합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주력산업에 제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, 韓中日 분업구조하에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
  -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첨단 나노공정(NIT)을 도입(45→32nm)하여 집적도를 45% 향상
- 현정부 출범 후 녹색성장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나, 상대적으로 산업융합의 정책 이슈화에는 미흡
  - 이미 美·EU·日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융합정책 본격 추진중
  - (美, '02) 15개 융합산업 선정, (EU, '04) 융합기술전략, (日, '04) 신산업창조전략
  -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든 법·제도만으로는 산업전반의 융합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에 한계
  - 대한상의 설문조사('10.3)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1.5%가 "융합촉진을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" 제기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(산업융합 촉진전략)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주도를 위한 전략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 ('10.10, 잠정)
  - 주요 내용(안) : 초기시장 창출지원, 융합형 R&D 확산, 융합형 인재양성, 중소·중견기업 역량강화, 융합지원체계 구축 등
- (산업융합촉진법)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법·제도상 장애 해소 및 정책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('10.10 정기국회 제출)
  -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(총리주재) 설치, 융합제품 임시인증(기준·규격 등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fast-track으로 제품인증 및 인허가 허용) 등 추진
  - 관계부처 의견수렴('10.4.23~5.3), 공청회('10.5.12), 입법예고('10.5.11~5.31), 규제위 심의 완료('10.6), 법제처 심사('10.8~9월), 차관·국무회의('10.9)

## 2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

### 가. 최근 IT산업 실적과 전망

- (실적) IT산업은 위기이후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국가경제에 기여
  - '10년 상반기 IT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16.9% 성장(GDP는 7.6% 성장)
  - 상반기 IT산업 GDP는 56.1조원으로 반기 사상 최대치
  - '10.1~8월 IT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4.8% 증가(전체수출은 32.9% 증가)하였고, 무역수지는 515.2억 달러 흑자로 역대 1~8월 최고치
  - 수출증가율(1~8월, %) : (반도체)89.0, (패널)40.6, (컴퓨터)50.7, (TV)57.6, (차전자)40.5
- (전망) IT산업의 성장세는 하반기와 '11년에도 이어질 전망
  - 금년도 IT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20.1%, 수출은 24.8% 증가할 전망
  - 당초 전망치 : 수출 14.0%↑, 생산 9.7%↑
  - '11년 IT산업 생산은 금년대비 3.1%, 수출은 5.8% 증가할 전망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스마트TV 등 미래 유망 IT 신산업 선제 대응 노력 강화
  - 민·관 공동 「스마트TV 포럼」 구성('10.9), 「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수립('10.4분기)」 등
- 자동차·조선 등 타산업과 IT의 융합을 확산
  - 「IT융합 확산전략」('10.7) 후속조치로 제약+IT 등 IT융합 R&D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센서 네트워크 등 IT융합 핵심부품을 개발
- SW, 시스템반도체(SoC), 방송·네트워크 장비 등 취약부문 경쟁력 확보를 통해 IT산업 구조 고도화
  - WBS(World Best SW), SW Maestro 등 「SW강국 도약전략」('10.2) 후속조치 추진, 「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」 수립('10.10) 등
- 민간의 창의·혁신이 최대한 발휘되고 IT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'를 지속적으로 개선
  - 원격의료 제한, 금융권의 종이문서 사용 관행 등

### 3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

- ◇ 자동차,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확대 추세
- 자동차 미국시장점유율(%): ('07)4.8 → ('08)5.1 → ('09)7.1 → ('10.1-6)7.8
  - 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(%): ('07)11.3 → ('08)9.6 → ('09)11.3 → ('10.1-6)13.0
- ◇ 향후 핵심기술개발 및 차세대 제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

#### 가. 전기자동차

- (현황)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소형전기차 30대 시험생산 ('10.9)
-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양산개념의 전기차를 개발하였으며, 차량성능 및 부품기술은 日 I-MEV(미츠비시) 보다 우수
  - 시험차 성능: 최고속도 (130km/h), 1회 충전 주행거리 (140km)
- (계획) '17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중형 전기차 조기 개발('17년 → '14년) 추진
- (개발) 전기차 양산을 위한 대형 R&D 추진,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소재 국산화,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품개발 등
  - (보급) 주행성능, 충전효율 평가 등 실증사업 실시, 공공부문 대상 집중 보급을 통해 초기 수요 창출

#### 나. 반도체

- (현황) 메모리분야 경쟁력을 지속 유지\*하는 한편,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산업 육성 추진 중
- 産·學·研 공동으로 차세대 메모리 개발 지속 추진('09~'13, 180억원)
- (계획) 「시스템반도체장비산업 육성전략('10.9)」을 토대로 휴대폰, D-TV,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지원
- 정부,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펀드(1,500억원 목표) 등을 조성하고, 수요기업 성능평가·인증 지원, 수요연계형 R&D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·장비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형화 및 수요확대를 지원

#### 다. 미래형 선박

- (현황) 저탄소 녹색선박\*,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, 해양레저 장비 등 미래형 선박의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중
- 에너지절감형 최적 설계, 친환경 추진동력(선박연료전지, 가스터빈 등) 등 환경오염 저감 및 연료절감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선박
  - '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(조선분야) 197억원, 해양레저장비경쟁력강화 30억원 등
- (계획)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논의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선박 기술개발(에너지절감형, 신개념 선박기술 등) 지원
-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('10.8~), 해양레저장비 통합형 R&D 기술개발(공통기반기술, 시제선 개발 등) 추진 ('10.10)

#### 라. 디스플레이

- (현황) OLED,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·장비 기술개발 추진 중
- AM OLED용 유연 플라스틱 기판 및 봉지재 기술개발('10~'14, 총 110억원) 등
- (계획) 11세대급 LCD장비 개발 추진\* 및 인쇄전자 발전로드맵 수립('10.4분기), 터치패널 핵심기술 개발('11년~)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 新트렌드에 적극 대응
- 차세대 LCD 장비개발 협의회 구성, 14대 핵심 품목별 기술로드맵 수립 등

#### 마. 산업용 섬유

- (현황) 슈퍼섬유소재 개발,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강도·고기능성 섬유의 국산화 및 산업화 추진 중
- '10년 슈퍼섬유소재 개발사업 100억원,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320억원 지원
- (계획) 초경량복합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의류용 위주의 섬유 산업을 산업용섬유 생산구조로 전환
- '11년부터 초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해 '탄소밸리'를 구축하고,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메디컬섬유소재 개발을 추진
  - 초경량소재: 항공기, 자동차, 조선 등 수송기기의 초경량화를 위한 탄소복합소재

## 가. 부품소재산업 현황

□ 부품소재산업은 수출성장세를 기반으로 **성장형 흑자구조로 전환**

○ '10년 상반기 수출(1,095억불), 무역수지흑자(372억불) 모두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

- 부품소재 흑자(억불) : (07) 364 → (08) 348 → (09) 512 → (10.1-6) 371
- 전체 수출중 부품소재 비중(%) : (07) 45.3 → (08) 43.5 → (09) 47.0 → (10.1-6) 49.4

□ 핵심소재는 일본, EU, 미국 등 선진국 수입 의존이 지속

○ 특히, IT산업 호황에 따라 액정, 필름 등 **핵심소재의 對日 수입이 증가세**

- 소재분야 무역수지 적자('07-'10.上, 억불) : 일본(△409), EU(△53), 미국(△13)
- '09년 대일 수입증가 품목(전년대비) : 액정(85.1%), TAC 필름(28.8%), 폴리이미드(23.1%)

## 나. 향후 추진계획

□ 기술력이 취약한 **핵심소재의 R&D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**

○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**주요 핵심부품소재 20개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자립화** ('10-'12년간 2,000억원 투자)

○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**10대 핵심소재(WPM)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유브랜드로 육성** ('10-'18년간 1조원 투자)

- WPM(World Premier Material): 시장규모 10억불, 세계시장점유율 30% 이상

□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 추진

○ 해외 우수기술 보유 기업 M&A 지원,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

- 부품소재기업 M&A 자금 지원 : 글로벌 부품소재 M&A 펀드(3,000억원, '10.1월 기조성), 한일 글로벌파트너십펀드(1,000억원, '10.10월 조성 예정) 등

○ 국내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**신뢰성 상생협력사업 확대 및 민간중심의 신뢰성인증제도 활성화**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

- 신뢰성 상생협력사업: ('09) 220억원 → ('10) 250억원

### 3. 무역 ·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

- ① 최근 수출입 동향 · 전망 및 향후 대책
- ② 외국인 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
- ③ 신흥시장 맞춤형 경험전략 추진
- ④ 경제자유구역 내실화 · 활성화

32% 증가한 4,260억불로, 무역수지는 320억불 이상 흑자 전망

• 전년대비 증가는 세계경기 불확실성,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 둔화

## 가. 최근 수출입 동향

### 가. 최근 수출입 동향

□ '10.9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.5% 증가한 3,388억불, 수입은 34.4% 증가한 3,094억불로 무역수지는 294억불 흑자 시현

○ (수출) 반도체 · LCD 등 IT 품목 및 자동차 등이 수출증가세를 견인하며, 중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확대

•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(%) : (반도체)83.0 (자동차)46.2 (LCD)38.1 (선박)8.8

○ (수입) 원유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며, 원자재 수입비중 확대 ('09 : 57.6% → '10.1~9.20 : 58.9%)

•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(%) : (반도체제조장비)221.9 (가스)56.9 (원유)40.0

## 나. 최근 수출여건 및 전망

□ (여건) 세계경제는 신흥국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나, 美 · 中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 상존

• '09→'10%, IMF, '10.7) : (세계) Δ0.6 → 4.6 (선진국) Δ3.2 → 2.6 (개도국) 2.4 → 7.0

○ 원-달러 환율은 경 상흑자지속 등 달러화 공급우위구조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

• 원-달러 평균 : 1,139('10.1) → 1,136(3) → 1,168(5) → 1,207(7) → 1,205(8)

○ 유가는 경기회복, 투기수요 등으로 다소 상승하여 '10년의 경우 연평균 75~80 \$/B(Dubai油) 내외로 전망

• 유가(두바이유, \$/B) : 76.8('10.1) → 77.3(3) → 76.8(5) → 72.6(7) → 74.2(8)

□ (전망) '10년 수출은 전년대비 26% 증가한 4,580억불, 수입은

## 다. 향후 추진계획

### □ 무역보험 공급 확대기조 지속

- 전체 무역보험 인수한도를 '10년 190조원('09년 170조원)으로 확대하여 위기이후 해외시장 점유율 제고 견인
-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대폭 확대('09, 743 → '10, 86.0조원)하고, **유망 중소기업은 보험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등 지원**
  - 對중소기업 지원('10) : 수출보험 80조원, 신용보증 6조원
  - Trade Champs Club 육성강화 : 국민은행과 금융 및 무역보험 지원 공조를 통해 '12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, 수출 1억불 이상 중견기업으로 육성(37개사 既선정)

### □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개척 인프라 확충

- **지사화 사업, 공동 물류센터 등 현지 네트워크 지속 확충**
  - 지사화 :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사무를 KOTRA가 대행('09, 2,050 → '10, 2,100개사)
  - 공동물류센터 : 주요수출거점에 국내기업 공동 물류창고 설치('09, 20개 → '10, 25개)
- **해외 우수전시회를 통한, 현지 마케팅 지원 강화**
  - '10년, 약 2,500개 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(234억원)
  - 해외수출상담회·무역사절단 파견 : ('09) 45회·212회 → ('10) 50회·220회
- **국내전시장 확충 및 수출상담회 대형화·전문화 지속 추진**
  - KINTEX 2단계 전시장 건립(5만㎡, '11), 舊서울역사 전시장 신설(1.2만㎡, '15)
  - 글로벌TOP 전시회 : ('10) 8개 후보 → ('11) 5개 후보 → ('12) 3개 (최종)

### □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정보 지원 강화

- **국가별·품목별 통합무역 정보망 구축** ('11년 신규사업 추진)
  - 대상국 단계적 확대 : ('11)EU → ('12)미, 인도, ASEAN → ('13)중 → ('14)일
  - (FTA) 특혜관세, 원산지, 규격, 기술표준, 인증, 환경규제 등 무역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**국가별·품목별 온라인 DB 구축**
  - (신흥시장) 주요국 경제·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, 시장 특성 등 시장개척단계에서 필요한 무역정보 수집 및 제공
- 무역협회 '무역컨설팅지원단'을 통해 통합무역 정보 DB를 활용한 **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추진**
  - '10.1월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, FTA, 무역실무, 세무/회계 등 컨설팅 중

## 2 외국인 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

### 가. 외국인투자 현황

- 글로벌 경기부진과 국가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경쟁 심화로 인해 **최근 우리나라의 FDI는 110억불 수준을 유지**
  - 신성장동력 분야와 신흥투자국의 외국인투자 급증, 수도권 편중현상 완화 등으로 내용면에서 **질적 개선은 긍정요인**
  - 하지만, 선진국 경기회복 둔화, 유럽 재정불안 지속, 중국의 건축가능성 등 **불안요인이 존재**

<외국인투자 현황>

| 구분          | 2006   | 2007   | 2008   | 2009   | 2010.9.24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FDI신고액(백만불) | 11,242 | 10,514 | 11,711 | 11,484 | 7,000     |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**경제위기 이후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**
  - 미·일 등 선진국 중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**중동·중화권** 등으로 투자유입선 다변화
    - 중국자본 전달유치를 위해 국내(KOTRA) 및 중국(상해)에 China Desk 설치('10.5)
  - 부품소재, 녹색성장 등 **국가 산업전략분야 유치활동 강화**
- **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강화**
  - **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부문으로 확대**
    - 서비스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외국인투자법 개정, '10.3)
    - 「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」 수립 추진('10.9.14, 외투위 개최)
- **투자유치 지원조직 강화 및 투자설명회(IR) 효과성 제고**
  - KOTRA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, FDI 전략수립 기능 확충('10.8)
  - 지자체의 산발적·중복적 해외IR을 지역별, 시기별로 통합 추진
- **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**
  - 「제2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('11~'13)」 수립('10.10)
  - 상시 외투기업 애로발굴 및 해소체계를 구축('10.6)하여 사후지원 강화

### 3 신홍시장 맞춤형 경협전략 추진

#### 가. 현황

- 중국, 인도 등 신홍시장이 세계소비지역 중심으로 부상하고, 아프리카, 중남미, 중앙아 저개발국에서의 자원 확보 경쟁 심화
  -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출기회가 커지는 신홍시장전점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경협전략 필요
    -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남미('09.11), 인도('09.12), 중국('10.1), 중동('10.3), 아프리카('10.5) 경제협력 방안 마련·추진 중

#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신홍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전략 추진
  - (중국, 인도, 아세안) CEPA 등 FTA 기회요인을 활용한 인도·중국 내수시장진출과 신산업 시장 선점
    - (중국) 서부대개발조사단 파견 등 省別 협력, (인도) 전력, 철도 인프라시장 진출
  - (아프리카)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동반진출을 위한 고위급 사절단 파견 및 EDCF활용 개발협력사업 추진
    - 아프리카 4개국방문('10.11), 한-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개최('10.10)
  - (중동) 경제개발과 산업다각화 수요에 대응한 원자력, 녹색, IT, 중소기업 등 신성장분야 및 에너지, 플랜트 협력 강화
    - 한-오만 경협위, 중동IR('10.10), UAE 경협(재생에너지, IT, 조선, 반도체)
  - (중남미, 중앙아) 석유, 광물 등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, 플랜트, IT 연계 협력사업 추진
    - 우즈벡(수르길 가스전), 카자흐(발하쉬 발전소), 중미(ESCO, IT), 남미(리튬)
- 전략적 경협추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
  - (수출지원) 지역별 유망품목 정보제공, 기업매칭 수출 상담회 등 시장개척지원과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수출인프라 확충
    - 해외공동물류센터 ('10년 25개→'12년 35개), KBC('10년 99개→'13년 140개)
  - (통상협력) 고위급 경제 협력 확대 및 전략적 ODA 활용 추진
    - 협력위 신설(가나, 남아공), 산업개발경험전수사업(개도국 ERP, 전력망구축 등)

### 4 경제자유구역 내실화·활성화

#### 가. 추진현황

-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·활성화를 위한 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」\* 수립·발표('10.9.1)
  - i)엄격한 지정·개발기준 마련, ii)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, iii)인센티브 제도 개선, iv)추진 행정체계 효율화, v)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
- 구역별 성과평가시스템 도입,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

#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(제도정비) 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」 세부이행과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연내 마무리
  - 주요 내용 : 지정요건 강화, 지정해제사유 구체화,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, 사업시행자 관리·감독 강화, 구역협의 전문성·자율성 제고 등
- 법령 정비 후 엄격한 지정 요건 및 평가 기준에 의거, 4개 지자체의 신규지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
- (개발·투자유치 촉진)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유인시스템 마련
  - 기존 구역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('10.10)하고, 구역별 성과평가시스템을 3개('10)→6개('11) 구역별로 확대
  - 중앙정부·구역청·KOTRA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간 협조 체제를 통해 해외IR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
    - '10.8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실적은 총 27.3억불(FDI 기준)
- (외국인 거주여건 조성) 외국 교육·의료기관 유치 관련 핵심규제의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 조속 마무리
- (기본계획 수립)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구역별 차별화 발전전략 등을 담은 「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」 연내 수립

## 4.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·자원정책

-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
- ②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
-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성장동력화
- ④ 전력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화
- ⑤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
- ⑥ 안전한 에너지 관리

##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

### 가. 추진현황

- ☐ '12년 교토체제 종료에 대비하여 '09.12월 개최된 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정치적 합의문 형태의 '코펜하겐 어코드' 발표
  - 금년에도 계속 선-개도국간 입장차\*가 있으나, 금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상 타결 노력
    - \* 선진국은 선-개도국을 포괄하는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는 반면, 우리나라 등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 상황 및 교토체제(의무·비의무감축국) 유지 요구
- ☐ 우리 정부는 '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(BAU)대비 30%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('09.11)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 ('10.4)
  -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역할을 분담\*하고 지경부는 산업·발전부문 전담
    - \* 지경부(산업·발전부문), 국토부(건물·교통), 환경부(폐기물), 농림부(농축산)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☐ (기후변화협상)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16차 당사국 총회에 대비하여 국제협상 등에서 적극 대응
  - 의무/비의무 감축국 체제 유지,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국제적인 인정 등을 위해 주요국과 협력 강화
- ☐ (감축마스터플랜)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·산업 부문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('10.12)
  - 산업의 국제경쟁력,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전망 등을 토대로 부문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
- ☐ (목표관리제) 산업·발전부문의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
  - 산업·발전분야 관리업체를 지정('10.9)하고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·기준 제정
    - \* 관리업체 대상(추정) : ('10년) 380여개 → ('12년) 430여개 → ('14년) 540여개

## 2 해외자원개발 확대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

### 가. 추진현황

- 범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한 **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**에 따라 석유·가스 및 전략광물의 **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**
  - 석유·가스 : ('07) 4.2% → ('09) 9% / 전략광물 : ('07) 18.5% → ('09) 25.1%
  - 석유공사 생산규모(B/D) : ('07년) 5만 → ('09년) 12.8만 → ('12년 목표) 30만
  - 호주 유연탄광 인수(4.2억톤, '10.7), 카자흐 아다광구 생산개시('10.6) 등
- **고위급 에너지자원 협력** 등을 통해 유망 탐사·개발 프로젝트 확보 및 기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활동 전개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#### ◆ 자주개발률 목표 :

(석유·가스) ('09) 9.0% ⇒ ('10) 10% ⇒ ('12) 18.1%  
 (6대 전략광물) ('09) 25.1% ⇒ ('10) 27% ⇒ ('12) 32%  
 · 유연탄, 우라늄, 철, 동, 아연, 니켈

-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의 **정상급 외교**, 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 등을 통해 **전략적 에너지 자원 협력**을 지속 추진
-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석유 기업 M&A, 전략광종 생산 광구 인수 등 **대형 프로젝트 확보**
  - 기존 6대 전략광물 외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, 희토류 등 2~3개 광종을 **신전략광물(가칭)**로 선정하고 **확보 추진**
-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, **세액공제 일몰연장**을 통해 민간기업 등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**금융·세제지원을 확대**
  - 수은 융자 ('09) 1.3조원 → ('10 계획) 2.2조원, 수보 보증 ('09) 1.3조원 → ('10 계획) 2조원
  -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추진
-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육성, **해외자원개발분야 R&D 강화**
  - '10~'19년간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, 달성전략을 담은 「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」을 수립 ('10.7)

## 3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

### 가. 추진현황

- '12년 8대, '15년 5대 **신재생에너지 강국**으로 도약을 위한 '**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전략**' 수립('10.9월, 녹색위)
  -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이
    - 고용인원(명) : ('07) 3,527 → ('09) 9,151 → ('10 전망) 11,715
    - 매출액(조원) : ('07) 1.2 → ('09) 4.0 → ('10 전망) 8.1
    - 수출액(억불) : ('07) 7.7 → ('09) 20.4 → ('10 전망) 46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(시장창출 확대) 내수시장 창출 통해 **공급확대 및 산업화 촉진**
  - 민간투자 촉진·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'**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**(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시행 ('12)
    -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 : ('12) 2% → ('22) 10%
    -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(신규물량) : ('12) 200MW → ('16) 280MW
  - **해상풍력 TOP-3 로드맵 수립**('10.10)하여,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
- (핵심·원천기술 확보)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의 **핵심 부품·소재개발 및 차세대 제품기술 확보**로 국제경쟁력 강화
  - 실리콘 태양전지의 저가화·고효율화,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, 풍력발전기 및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·소재 국산화 등에 R&D 집중지원
- (수출산업화 촉진)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**맞춤형 수출전략 마련 및 해외진출지원 추진**
  - 수출금융, 해외 유망 수주기회 정보제공, 운영실적 아련을 위한 Test-Bed 구축, 해외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책 아련
  - **해상풍력 TOP-3 로드맵 수립**('10.10)하여,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
- (기업 성장 기반 강화) 후발국가에서 **조기 신재생에너지 강국** 도약을 위해 **기업 성장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**
  - 기업 성장 기반 금융 메커니즘 구축, 수요 단계별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, 과감한 규제개선, 투자 유인 세제 지원 강화

## 4 전력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화

### 가. 추진현황

- UAE 원전수출,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
  - UAE 원전은 현정부사무소 개설('10.1), 부지 시전승인('10.7) 등 사업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중
  - '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국가로드맵 수립('10.1), 제주도 실증사업, 美 밀리노이주와 국제협력 추진
- '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경쟁·효율·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「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」 수립 ('10.8)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(원자력 성장동력화) UAE 원전건설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하고, 관심 국가별 협력활동 강화
  - '17.5월 UAE 원전 1호기 준공 목표
-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기자재산업 육성 방안 및 중장기 원전기술 국가로드맵 수립 ('10.12)
- (지능형전력망 구축)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 구축 및 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「지능형전력망법」 제정 ('10.4분기 국회제출)
  - 주요내용: 거점지구 조성, 전력정보 수집·활용, 전력망 안정성 확보, 지원기관 지정
- 우리나라 녹색성장 대표브랜드인 지능형전력망을 대내·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「Korea Smart Grid Week」 개최 ('10.11)
  - 행사내용: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회체 회의, 국제에너지기구(IEA) 로드맵 발표, 실증단지 국제컨퍼런스 개최, 스마트그리드 국제 비즈니스 페어 등
- (발전경쟁 촉진) 발전회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, 발전회사간 인위적 분할로 인한 문제점 해소
  - 양수발전소 이관, 신인천-서인천발전소 통합운영 및 발전회사간 공조강화

## 5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

### 가. 추진현황

- 목표지향적 수요관리를 위해 「2010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('10.1)」, 「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('10.7)」을 수립하여 추진 중
  - '10년 절약목표를 5백만TOE로 설정하고, 37개 과제 추진
    - 경기회복, 이상기온 등으로 전년대비 7% 증가가 전망되는 '10년 에너지수요를 강력한 절약시책을 통해 4.9%로 억제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절약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
  - (산업)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, 중소기업 진단지원, 대중소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추진
  - (건물) 건물 에너지효율인증 대상을 기존 건물로 확대하고, 냉·난방 온도 제한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종 집중 관리
  - (수송) 경제운전패키지를 의무화하고, 고연비 차량 인센티브 및 에너지비용 표시의무화를 통해 고효율차량 판매 촉진
-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하는 진흥정책 추진
  - (ESCO) 정책자금 확대, 민간자금 유입 등 자금력을 강화하고, 평가체계 도입, 성과보증제 확산 등 서비스품질 향상
  - (집단에너지) 30% 가량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열원 개발, 지역냉방 보급 확대 추진
  - (LED) 광원별·수요처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효율기자재인증제 개편, 용가지원 연계 등 체계적 보급기반 구축

## 가. 추진현황

## □ 원전 설비 확대에 대비한 안전한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

○ (중·저준위) 방폐장 1단계 건설(10만드럼, 동굴방식, ~12년 말) 이 진행 중 (경주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 사용준비 완료)

- 8.5일 경주시와 MOU 체결 완료(지원사업 활성화, 방폐물의 조기 이전 등)

· '10.8월말 기준, 종합공정을 68.1%, 운영동굴 89%, 건설동굴 55% 굴착 완료

○ (사용후 핵연료) 중장기적 처분방안에 대해 전문가 용역 중

· (참여) 원자력학회, 방폐학회 등, (기간) '09.12월~'10.12월

## □ CNG 버스의 안전관리 강화

○ (안전점검) 행당동 CNG 사고의 후속조치로 사고 버스와 유사한 결함가능성이 있는 버스\*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중

· 전자식 밸브 장착 버스, 클램프 고정용 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버스 등 약 3,000대

○ (제도개선) CNG 버스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정기적인 점검사제도 도입, 안전장치 의무화 등 추진 (국토부와 공동)

## 나. 향후 추진계획

## □ 원전 확대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

○ (중·저준위) 경주 방폐장 1단계를 공기내에 안전하게 마무리 하고, 후속 단계 건설도 추진

○ (사용후 핵연료)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

## □ CNG버스 정밀안전점검의 조속한 추진 완료\* 및 일원화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한 T/F 구성·운영\*\*

· 전자식 밸브 점검은 '10.9월 既완료, 손상 용기 점검·교체는 '11.5월 완료예정

\*\* 관련 법령 및 재검시기준 제개정 사항 등 협의